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학생소년들

맑고 푸른 하늘가에 은은한 노래선들이 울려 퍼진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꼽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한구절이다.
이 가요가 창작된지는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는 대표명곡으로 오늘날까지도 애창되고있다.

얼마전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진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서도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울려 퍼졌다.

누구나 이 노래를 들으며 온 나라 부모들의 사랑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은혜로운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보았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어린이는 인간다움과 사랑

세상에 부럼없어라

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 어느 시대나 사랑과 행복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고있는것은 아니다.
이름난 소년운동가였던 작가 방정환은 1920년대에 나라 없는 슬픔속에서 민족의 후대들을 끝없이 사랑해줄것을 원하는 피절은 마음을 글줄에 담아 이렇게 썼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우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썩어나갈것입니다. ...》

일제식민지통치말에서 애 어린 작마져 짓밟혀야 했던 조선의 어린이들이 오늘날은 민족의 미래로, 나라의 왕으로 온갖 행복을 누리고있다.
오늘의 아름다운 현실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퍼런 항일대전의 나날 마안산의 흑한속에서 험벗은 아이들을 보시며 저 애들이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

장의 모포를 덮은들 마음이 편 하겠는가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의 체취가 스며있는 돈 20원까지도 아이들의 새옷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해방된 새 조선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 새벽하늘에 셋빛같이 빛나는 새 나라 조선의 800만 어린이여! 새해와 한가지로 새 복을 받아 곧 세고 새 조선의 새 일꾼 되소서라고 한편의 시를 써내려 보내주시였던 수령님이시었다.

주제 98(2009)년 설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문필가들에게 안겨주신 만민필에 대하여는 문필가들에게 줄 만민필에 어떤 글을 새겨줄것인가를 많이 생각해보다가 《미래를 사랑하라》라고 써주기로 결심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마안산의 모포가 전하는 사연처럼, 첫 의정이라는 글밭이 보여주는것처럼, 《미래를 사랑하라!》는 구호가 보여주는것처럼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후대사랑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만을 알고 자라났다.

오늘날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수 없는 큰 행복을 누리가고있다.

2년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을 온 나라의 품속속에서 내세워주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위한 최한한 옥류아동병원도 세워주시고 도처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도 유회오락시설들도 건설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몸소 육아원과 예육원을 찾아서 원아들에게 친부모의 따뜻한 정을 기울여주시고 얼마전에는 훌륭하게 개진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가하시어 학생들을 축하해주시었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온 나라의 미래로 떠날들리우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의 혜택속에 마음껏 배우고 뛰놀며 나라의 기동감들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하나 한지맥으로 이어진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의 운명은 어떠한가.
그 누구도 보호해줄수도 없고 품어줄수도 지켜줄수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랑을 잃고 방황하고있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따뜻한 품대신 길거리나 상자속에 내버려지는 아기들의 수자가 한해사이에 3배로 늘어났다는 경악할 사실이 전해지고있지 않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대형객선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되어 거기에 타고있던 수백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꽃망울도 피워보기 전에 생명을 잃는 끔찍한 참변까지 빚어졌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공화국의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태양의 빛날속에 더 아름답게 만발할 민족의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나날이 부강해지고 통성변명할것이며 이 땅에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같은 행복의 노래소리가 소리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경

－ 옥류 아동병원을 찾아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집

우리는 얼마 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훌륭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찾았다.

어머니품으로 달랠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이란듯 평양산원과 마주하고 있는 아동병원의 모습은 참으로 정겹게 안겨왔다.

엄마손을 잡고 찾아오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들어선 우리는 3층에 있는 심장혈관외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이 개원한지 몇달밖에 안되었지만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의로봉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조인수과장의 말이었다. 그는 최신식의 로열비들과 유능한 의료인원들이 있어 병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의로봉사를 첨단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고, 우리 심장혈관외과에서만도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수술을 수십여차례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며칠전에는 김철진의사가 복합심장기형환자였던 한살난 어린이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수술방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또 하나의 혁신을 창조했다고 한다.

사실 출생후 사망률이 가장 높은것으로 알려진 선천성심장병에 대한 수술은 의과조작의 높은 기술을 요구할만큼 높은 림상기술과 값비싼 첨단의료설비를 갖춰야 하는 어려운 수술이다.

이런 수술을 얼마든지 해

낼수 있다고 하는 이곳 의료인들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이들에 대한 의로봉사를 최상급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편의를 보장해주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났다.

짧은 기간에 의학계를 놀라게 하는 첨단성과들을 련이어 안아온 이들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보다 큰 치료성과를 확신하며 우리는 종합수술장과 집중치료실, 주사실, 입원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종합수술장도 그러하였지만 집중치료실에도 환자치료를 최대로 잘할수 있게 자동인공호흡기, 중환자감시장기, 인공심폐기, 미량주입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첨단의료설비들이 그쯔히 갖추어져있었다.

입원실에 들어서서 우리의 감동은 더욱 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액정TV며 램프등, 고급침대들...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사소한 불편도 그걸세라 필요한 모든것이 구비되어있었다.

결음을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조인수과장은 말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어린이심장수술을 하는데 보통 몇만US\$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 애들은 자기들이 받

고있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아마 다는 모를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철부지들이지만 나라에서는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친것보다 더 큰 혜택을 배풀어주고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의 요람속에서 치료받는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계에는 발전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도 많고 아동병원을 가지고있는 나라도 많다. 하지만 그 병원들은 치료조건과 치료환경에서 옥류아동병원과는 대비할수도 없다. 평민의 자식들은 병원문턱을 넘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설사 문턱을 넘어섰다고 해도 엄청난 치료비에 부모들이 가슴을 조이게 되는 것이 레상사이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천만금을 아낌없이 들여가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동병원을 세우주었다.

그렇다.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다.

고마운 사회주의보전제도의 품속에서 온갖 복을 누리며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꽃봉오리들의 밝고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우리는 그 이름도 정다운 옥류아동병원을 나갔다.

본사기자 최 대 성



해외동포청소년 평화미술전시회 로씨야에서 진행

로씨야 짜할린주에서 발행되는 《새고려신문》 창간 65돐에 즈음한 해외동포청소년 평화미술전시회가 13일 로씨야 짜할린주에 있는 문학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었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의 청

소년학생들과 동포학생들이 출품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전시된 미술작품을 돌아보았다.
이어 로씨야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돈 이 나, 인 간의 생 명이 나

이남에서 《세월》호침몰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나갔다. 하지만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여론은 잦아드는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되고있다. 《세월》호참사의 구조과정을 지켜보며 이남의 각계층에서 《진실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나 역시 나름대로

돈에 의해 배척당한 인간생명

지난 4월 10일 이남의 진도 앞바다에서 수백여명을 실은 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나 뜻밖의 요인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수는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가 《세월》호참사를 놓고 경악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 낳은 필연적인 인재이기때문이다.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과 이번 참사를 대하는 이남당국의 태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세월》호로 말하면 이남의 한 선박회사자 다른 나라에서 승객이 다 된것을 들여온 낡은 선박이다. 거기다가 수입을 늘일 목적으로 무리하게 객실을 증축하고 3배 이상의 짐을 실으면서 화물

《세월》호참사를 지켜보면 서 그것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앞에 놓는 황금만능의 썩어버진 세상에서 피할수 없는 악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이 혼들리지 않게 결박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질은 안개로 하여 배가 출항할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인간의 생명안전보다 리윤감소를 걱정한데로부터 배를 출항시켰던것이다. 결국 《세월》호의 침몰은 자본의 탐욕이 초래한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된 다음 남조선당국이 취한 행동은 또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배침몰 보고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거짓말만 해대고 언론에 압박하여 거짓 보도를 쏟아내게 하였다. 구조인원들을 태운 직승기는 전라남도청의 고위인물들을 태운다고 하면서 배가 완전히 침몰된 다음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만들었다. 현세를 탭진하며 만든 구조함은 술한 아이들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시각인데도 《성능검증》이요 뭐요 하며 투입조차 하지 않아 얼마든지 살릴수 있었던 꽃같은 생명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던것이다. 사건이 일어난지 많은 시일이 지나도록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현상을 놓고 이 남국민들한테 구조못한것이 아니라 일부터 구조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문을 토하고있는 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남당국이 제때에 대응책을 세우지 않은 리유의 하나가 구조할 준비용과 보험금 등 돈문제 때문이었다는것이다. 그밖에 청해진해운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의혹이 있어났던것도 사실이다. 51여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경형이 있는데 114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세월》호가 아닌가.

돈이 없어 제일 늦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를 타고 수확려움을 떠났던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애당초 당

국이나 회사측의 관심밖에 있었다.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생명이 꺼지는 마지막순간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부자집자식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글을 남기고 유가족들이 《이 땅에서 내 자식 지키려면 최소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국회〉 의원정도 는 되어야 한다.》, 《강남의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면 구조작업을 이렇게 했겠는가?》고 울분을 터치고있겠는가.

《기업이 살아야 사람도 살수 있다.》는 론리만 존재하고 《로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수 있다.》는 사고는 철저히 배척당하는 땅, 리윤 추구사회에의 가치로 된 남조선사회에서 인간이 설 자리는 없다.

사람들의 생명안전보다 기업, 리익이 우선시되는 나라, 사람보다 돈이 제일인 곳을 두고 과연 인간세상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사람은 살이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와 생명이 짓밟히는 암흑의 세상이 아닐수 없다.

《나는 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이 땅에서 내 자식을

버렸기때문에 나도 이 땅을 버린다.》며 이남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못살 황금만

인간 중심의 참 세상

그러나 이남과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에서는 어떤 현실이 펼쳐져있는가.

지난 시기 나는 고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였다. 그 나날 모든것에 앞서 언제나 인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생명과 리익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현실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인가 신의주지구에서 큰물피해자 난 소식을 들은 뒤골이어서 고국에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안내원에게 인명피해가 얼마나 났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 물음에 안내원은 《큰 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다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졌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갑자기 억수로 퍼붓는 비로 하여 수해가 난 지역인민들을 구원하는데 인민군부대들과 직승기들이 동원되었다. 그때 구원된 수재민들속

능의 책고 병든 세상을 저주하며 떠나가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에 당장 해산을 앞둔 산모도 있었는데 그는 직승기를 타고 평양산원으로 가던 도중 해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구원된 산모의 모습은 보고싶어 평양산원에 들린 나는 건강한 아이와 산모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시었다. 예로부터 가물뒤편에는 건질것이 있어도 큰물피해뒤에는 건질것이 없다는 말이 전해져오지만 고국에서는 큰물피해로 인구가 줄어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으니 이 희한한 현실은 오직 인간의 생명을 첫자리에 놓는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고국방문의 나날 사정에 처한 평범한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천만금도 아낌없이 들어 구원해낸 전설같은 사연들을 수없이 전해들을수 있었다.

조개잡이를 하다가 풍랑사나온 바다로 떠돌려가던 평범한 한 처녀를 위해 여러대의 인민군 직승기가 동원되어 기적적으로 구원해낸것과 같은 사실을 지금까지 세계의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

세계적으로 사나운 풍랑의 해 70여척의 크고작은 선박이 수장되어 《죽음의 날》이라고 부르는 1980년 10월 26일에 조선통해에서 침몰위기에 처하였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된 하나의 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수백명의 제일동포들을 태운 객선 《삼지연》호였다. 공화국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긴장한 구출작전을 벌여 단 한사람의 사망자도 없이 무사히 귀향할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북에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꺼져가는 한 생명을 위해 퍼를 바치고 살을 바치며 배를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저 하늘의 뜻별처럼 수없이 많다.

몇해전 남포시를 참관하던 나날 직접 목격한 하나의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 그때 남포시인민병원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화상을 입은 5명의 환자들이 들어왔었다. 그들은 전신 5%의 3도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채 생사기초에 허덕이고있었다. 병원에서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의사, 간호원들은 물론 어느새 그 소식을 듣고 시인의 교린, 학생, 인민군관인들, 일군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달려와 자기의 피와 살들을 서슴없이 바치었는데 그 수가 무려 2 000여명에 달하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처음에 나는 환자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저마다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수술장으로 달려오는것을 보며 퍼를 팔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가고 생각했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려는 뜨거운 정이 넘치는 사회를 처음 보았기때문이다. 병원의사들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야 놀라움에 휩싸여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고 감탄한 나였다. 언젠가 고국에 와서 본 적있는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 나오는 한 일본 인기가가 조선을 방문하여 보고 느끼는 현실을 나도 체험한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이런 소행들이 보통일로 되고있다.

공화국은 자기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언젠한번 인민의 생명과 리익을 뒤차리에 놓아본적이 없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의 생명과 리익,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이야말로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별세상이다.

하기에 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야말로 인간중심의 참 세상,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돈이나, 인간의 생명이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고 생명이다. 인간중심의 정치가 펼쳐지는 북과 모든것이 돈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들이 마구 짓밟히는 이남은 하늘과 땅같은 차이를 가지고있다. 어느곳이 진실로 인간다운 세상이고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 하는것은 더 말할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하다고 본다.

《세월》호의 침몰은 인명경신, 인권말살의 자본주의 《한국》호가 지금 바다속에 가라앉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특대형사건이다.

민족의 미래는 국민을 바다속에 수장하며 침몰하는 남이 아니라 인민을 모두 행복의 꽃수레에 태우고 강성국가로 솟구치는 북에 있다. 정의도 북에 있고 시간도 북에 있으며 인간민세의 최후의 승전고도 북에서 울려 퍼질것이다.

재미동포 고 진 근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 순진한 남쪽의 아이들이 무엇때문에 초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